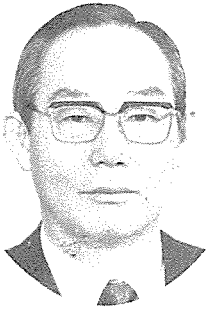


# 農林水産部長官 就任辭

-농어촌과 농어민 입장에서 농림수산업정책 수행할터-



지금 우리는 憲政史上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가  
양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고 盧泰愚대통령의  
領導아래 민주화합의 새시대인 제6공화  
국이 출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뜻깊은 시기에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농림수산업정을 책임지게되어 무거운 책임  
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1천만농어민의 복  
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농림수산 공직자  
그리고 농림수산 관련단체 임직원 여러분과 함  
께 일하게 된것을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前任 金周浩장  
관님을 비롯한 역대 농림수산부장관님들의 탁  
월한 지도력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  
리 農林水産業이 나라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것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농림수산공직자 여러분!

새政府의 출범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라안팎으로 엄청나게 빠른 변화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과제들과 씨름해야만 하는 상  
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다양한 國民의 욕구에 의해 분출되  
고 있는 民主化의 열기, 노사간의 문제, 계층간  
의 갈등이라는 많은 難題들을 안고서 고도선진  
산업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제2의 도약을 반드  
시 성취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과제를 가  
지고 있으며 밖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거  
대한 시대적 潮流가 세계를 휩쓸면서 대응력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의 우리 농림  
어업에까지 수입개방의 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은 여러분 모두가 周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우리 농림수산업  
직자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두가지 당위명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庶泰愚 새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공  
약하신바 있는 향후 5년간 농어가소득의 배증  
과 교육·문화·환경면에서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  
는 살기좋은 농어촌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지혜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집시켜 정책을 수립, 실  
현해나가야 하느냐하는 것이며 또다른 하나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화합의 시대를 열어나  
감에 있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에 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위명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  
그 구체적 실천대안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아가기로 하고 이자리에  
서는 農政에 임하는 저의 소견만을 몇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림수산  
부분부를 떠난지 9년이 되었으며 政府를 떠나  
5년 8개월간 농민단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정부안에 있을때에는 미처 체득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또 경험  
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農林水産政策  
을 수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농  
어촌과 농어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아갈 생각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고 농어민의 자율적인 능력을 높이는 한편 농  
정에도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오늘  
의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어업문제 해결을 民과  
官이 갖고있는 역량을 한데 모아 打開해나아가도  
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밖에 있는 자생적인 농  
어민 조직과의 대화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農林水産業의 문제를 산업이라는 차  
원보다는 농어민이 살고 있는 농어촌의 종합개

발이라는 차원에서 시야를 한층 넓혀 해결해나  
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농림수산업의 점하고 있는 GNP 기여율  
과 농어민이 점하고 있는 인구비율이 상대적으  
로 낮지만 전체인구가 약34%가 농어촌에 살고  
있고 都市民의 대부분이 농어촌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은 우리민족의 뿌리이자 고  
향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적 차원을 고려한 농어촌  
의 개발전략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개  
발전략의 추진을 위해 우리는 관계부처들과 긴  
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째는 농어가소득 倍增을 실현시키기 위하  
서는 가능한 모든 方法을 총동원하여야 하겠습  
니다.

농림수산업의 果敢한 근대화추진, 자본과 기  
술집약적인 생산물을 적극 개발시켜 나아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  
과 생산기반의 정비확대, 농어민후계자의 효율  
적인 육성과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인력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향상에 힘써야 하겠습  
니다.

또한 산지자원의 다목적 개발, 연근해어장의  
목장화등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힘쓰는 한편 농  
어민 또는 농수축협이 참여하는 농림수산물의  
이용가공사업을 확대시켜 보다 많은 부가가치  
가 농어민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  
며 농어업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를 위해 농림수  
산물의 유통개선과 가격안정제도도 보다 확고  
하게 만들어야 하고 농산물의 수입을 최대한 억  
제하도록하되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경우 피해농  
가의 보상책도 강구되도록 우리의 노력을 경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려면 농업소득은 물론 농외소득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외  
소득창출의 기회가 되는 관광농업개발, 부업단  
지육성, 농공지구조성등 농어촌공업개발시책이

성공하도록 적극참여하고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農漁民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國民株 및 優良株의 구입 또는 신탁관리제도를 농가가 목돈마련 저축제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네 제로는 농어촌의 생활 환경개선과 복지기반을 확충시켜 우리농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도로·교통·통신시설 등을 확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육·문화의 기회확대와 의료시설의 확충 그리고 의료보험제도·국민연금제도·농업재해대책등 복지제도의 실시도 농어민들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또는 단체들을 가능한한 협조·지원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농어촌 관련정책이 반영되는 종합농정의 수립과 실천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수립된 政

策은 책임을 지고 소신과 집념을 가지고 끈기있게 추진하여 所期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공직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를 분명하게 정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政策을 立案, 추진함에 있어 이것은 그 전제조건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하고 개혁의지로서 그릇된 權威主義的 요소를 불식시키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연속된 풍년농사가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1천만 농어민과 10만 농림수산공직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취임인사에 거듭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 2.

農林水産部長官 尹 勤 煥